

일곱 명의 동명이인들과 각자의 순간들

흠뻑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는 중학생들의 뒤통수에서 고개를 돌리면 거대한 오피스텔 건물 물이 눈에 들어온다. 준공 당시에는 제법 근사하게 보였을지는 몰라도 이제는 다른 고층건물들에 밀려 십 년도 지나지 않아 쇠락한 분위기를 풍기는 외관이 눈에 띈다. 간판이 떨어져 지나간 흔적이 남아있고, 보이지는 않지만 엘리베이터가 서너 번 이유 없이 멈춘 적이 있으며, 역시 이제는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중학생들이 서너 번 떨어져내린 적이 있다. 1층부터 3층까지는 상가, 4층부터 꼭대기층까지는 주거용이다. 건물의 사면을 둘러 주거용 공간들이 배치된 까닭에 건물 중앙부는 텅 비어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으로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면 까마득한 높이를 느낄 수 있다. 중정은 건물 안이나 안채와 바깥채 사이의 뜰을 말한다고 한다. 주거용 공간에 가로막혀 햇빛이 들지 않는 이곳을 사람들은 중정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가끔 이곳으로 누군가가 추락한다. 이 일은 3, 4년에 한 번씩 일어난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잊고, 다시 충격을 받기에 충분한 간격이다.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늙은 여자가 옆에 와 선다. 그는 나를 올려다보며 입술을 달싹인다. 20층. 19층.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고 있다. 3층. 2층. 1층.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문이 열린다. 두 사람이 내린다. 늙은 여자는 내가 엘리베이터에 먼저 타기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발을 안으로 들인다. 삼면에 부착된 거울을 통해 나는 보지 않아도 늙은 여자를 볼 수 있다. 그가 입술을 달싹이며 중얼거린다. 난 혼자서는 이걸 못 타. 한 번 멈춘 적이 있어. 난 혼자서는 못 타. 그는 15층 버튼을 누른다. 나는 꼭대기층까지 갈 생각이었으므로 그가 내리기 전에 내가 먼저 내리지 않아도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언제부터 이 건물에 살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일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엘리베이터를 타야 한다면 안 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1층에서는 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사람과 마주친다. 상가가 들어선 2층과 3층에서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사람을 쉽게 본다. 그러나 4층부터는 엘리베이터 이용자가 다소 줄어든다. 그는 혼자 사는가. 그는 15층에 사는가. 출퇴근 시간과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비교적 한가한 시간에 15층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이 엘리베이터는 15층에 도착한다. 문이 열리고 늙은 여자가 내린다. 일흔 살쯤 되었을까. 그의 뒷모습을 가리며 문이 닫힌다. 나는 가능하다면 내일도 늙은 여자와 마주치고 싶다고 생각한다. 나는 15층에는 아무런 불일이 없지만 그가 낯선 존재에 의지해 다소 마음 편히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다면 그가 나타날 때까지 15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몇 시간쯤 기다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22층. 23층. 엘리베이터가 올라간다. 밖에서 둔중한 소리가 들려온다. 엘리베이터가 멈추지 않는다. 27층. 28층. 엘리베이터가 멈춘다. 문이 열리고 먼 곳에서 누군가의 비명 소리가 들려온다. 여기저기서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려온다. 나는 중정이 내려다보이는 난간으로 다가간다. 밑이 까마득하다. 4층부터 29층까지 난간들이 층층이 쌓여 있다. 군데군데 아래를 내려다보는 사람들이 보인다. 그들의 시선은 한 방향으로 모여든다. 건물 중정의 가장자리에 누군가의 치맛자락이 펼쳐져 있다. 여전히 비명 소리가 들려온다. 가운데 부분이 통째로 뚫려있는 이 건물은 그 자체로 거대한 소리통이 된다. 슬리퍼를 끄는 소리, 숨을 삼키는 소리, 낮은 탄식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건물을 뒤흔든다. 나는 난간에 기대어 아래쪽을 내려다보는 사람들의 뒤통수를 내려다보며 주머니에서 삼각김밥을 꺼낸다. 포장을 풀고 한 입을 베어문다. 피 맛이 난다. 그러나 삼각김밥에 철분제는 들어있지 않다.

아침에 일어나 몸무게를 재보면 전날 밤보다 500그램씩 줄어있다. 하루가 지나가고, 가끔 먹고, 가끔 배설하고, 밤에 다시 몸무게를 재보면 400그램이 늘어나있다. 그러므로 하루에 100그램씩 몸무게가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열흘이면 1킬로그램이 줄어든다. 한 달이면 3킬로그램이 줄어든다. 몸이 몸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몸무게는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하다. 나의 몸무게는 자발적으로 줄어든다. 나는 몸무게를 억지로 줄이지 않는다. 그리고 날마다 줄어들고 채워지는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몸무게를 꼼꼼하게 기록한다.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기록하는 어느 하루, 문자 수신음이 울린다. 통장이 압류되었다고 한다. 건강보험을 열두 달 동안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거나 내지 못했다.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 청구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건강보험공단을 찾아갔고, 항의했고, 본인으로서는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으며 산출근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므로 본사에 항의서를 넣으라는 실무자 앞에서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항의서를 냈고, 세 달 뒤에 기각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았고, 몇 번의 압류 및 차압 경고장이 날아들었고, 무시했고, 결국 통장이 압류되었다. 통장의 잔액을 조회하니 십삼만사천 원이 들어있다. 내가 내지 않은 건강보험료는 물론 이 액수를 상회한다. 7년 넘게 다닌 직장에서는 나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주지 않는다. 아직까지 해고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지경이다. 그러나 감사한 마음은 조금도 생기지 않는다. 꿈에서 대통령을 보았고, 법인세 인하분을 어찌서 근로소득세 인상으로 메꾸려고 하느냐고 따졌다. 그러나 실제로 나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다. 나는 직장이 있는데도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그리고 십일조보다 과한 비율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래서 내지 않았고, 통장을 압류당했고, 날마다 몸무게가 100그램씩 줄어든다. 언젠가 받은 연금 안내장에 의하면 내가 2046년부터 매달 사십삼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 한다. 2046년이 오기 전에 세계가 멸망할 것이다. 통장에 남아있는 십삼만사천 원은 2046년에 얼마 만큼의 가치를 가질 것인가. 2046년에 십삼만사천 원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2014년인 지금도 건강보험료 한 달 분을 미처 내지 못하는 돈이다. 그리고 날마다 몸무게가 100그램씩 줄어든다. 나는 2046년이 오기 전에 소멸할 것이다. 건강도 연금도 없을 것이다. 내가 매달 받게 된다는 사십삼만 원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누군지는 몰라도 그는 매달 커피 한 잔쯤 사마실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껌 한 통을 사거나.

그러나 아직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건강보험공단을 찾아가 드잡이를 하거나 바닥을 뒹굴거나 서너달 치를 내고 압류를 해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방편들은 일시적일 뿐이며 나의 항구적인 증오를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 전화를 걸면 상담원에게 연결된다. 상담원은 내게 사랑한다고 말한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지난 해 총소득을 말해주고 이해할 수 없는 액수의 건강보험료가 청구되고 있다고 말한다. 상담원은 죄송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너는 내게 죄송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화가 난다. 식당이나 호텔에서 형편 없는 서비스를 받은 손님이 지배인을 찾는 장면을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여러 번 본 적이 있다. 나 역시 지배인을 찾고 싶다. 그러나 지배인이 누구인지 부를 수 있는 사람인지 한 사람인지 여러 명인지 알 수가 없다. 내가 전화를 끊지 않자 상담원의 목소리가 타들어간다. 죄송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상담원의 사과를 들을 생각이 없다. 상담원은 아무 것도 잘못하지 않았다. 나도 안다. 그러나 그는 내 얘기를 들어줄 유일한 사람이다. 나는 날마다 몸무게가 100그램씩 줄어들고 있다고 말한다. 상담원은 또 다시 죄송하다고 말한다. 한 달에 3킬로그램씩 몸무게가 줄어들고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일 년

뒤에는 24킬로그램이 사라질 것이고 내 몸은 반쪼가리가 될 것이다. 나는 이 따위 이야기를 계속하며 전화를 끊지 않는다. 상담원은 참을성 있게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 어쩌면 이미 수화기를 내려놓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처럼 방향이 엇나간 사소한 복수는 아무 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짜증이 머리 끝까지 치민 나는 울음을 터뜨린다. 고성을 지르며 전화기를 집어던지려다 그만둔다. 상담원이 말한다. 선생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이미 한 번 했던 일이다. 건강보험공단을 직접 찾아갔을 때에도 나는 선생님이로 불렸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이 어처구니 없는 호칭이 더욱 모욕적으로 여겨진다. 나는 상담원에게 죄송하다고 말한다. 상담원은 말이 없다. 짧은 순간이지만 나는 상담원에게 진정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진정으로, 라니. 어처구니 없는 표현이다.

밤, 다시 몸무게를 잰다. 아침에 500그램이 줄어있었다. 지금은 거기서 300그램이 늘어나 있다. 200그램이 빈 셈이다. 울음과 고성과 분노가 100그램을 소모시킨 모양이다. 내가 잃어버린 것은 지방인가 근육인가 혈액인가 살갓인가 방향 없는 분노인가.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본다. 건강보험공단이 다음 달부터 75세 이상 노인에게 임플란트를 반액으로 시술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고 한다. 내 이는 멀쩡하다. 내가 75세가 되려면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을 더 살아도 모자라다. 내가 75세가 되는 시점은 2046년이 지난 후다. 내가 아는 노인들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생각한다. 내가 내지 않은 건강보험료는 노인 한 사람이 새 이를 해놓을 수 있는 액수와 같다. 가망 없는 싸움을 포기하기에 적당한 이유다.

착한 커피에서 커피를 마시고 다음 날은 더 착한 커피에서 커피를 마신다. 날은 춥고 눈이 내리지 않는다. 날마다 커피 값으로 사천 원을 지불하고 달마다 오십오만 원의 임금을 받는다.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지하 공기가 습하다. 이곳에서 일주일에 5일을 일한다. 명목상의 사장은 가게에 잘 나오지 않는다. 대신 사장의 아버지가 자리를 지키며 팝콘을 튀기고 맥주통을 나른다. 가끔 테이블 대신 바에 앉는 손님들이 있다. 그 중 한 사람은 독일인이다. 독일인이지만 한국말을 빼어나게 한다. 그는 한달에 두어 번 이곳에 온다. 오늘도 동행이 있다. 그들은 한국어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이 바에서 나누는 대화는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들을 수밖에 없다. 독일인은 젊었을 적 소도시 변두리에 위치한 작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말한다.

“변두리여서 동네 사람들이 자주 찾는 장소였어.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했지.”

“독일인이 독일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군.”

“그렇지. 한테 어느 날 낮익으면서도 낯선 손님이 어떤 여자와 함께 들어왔어. 어디서 본 적이 있는 얼굴이라고 생각했지. 알고 보니 전에 시내 식당에서 일할 때 자주 오던 단골이었어. 항상 아내를 동반했지. 그런데 그날 데리고 온 여자는 아내가 아니었어.”

“그러면?”

“물을 따라주면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지. 그 여자는 아내가 아니라 애인이었어. 시내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까 봐 일부러 변두리까지 왔던 거야. 그런데 내가 자기를 알아볼 줄은 몰랐겠지.”

“짐작조차 못 했을 거야.”

“그런 것 같았어. 그는 식사를 끝내고 내게 후한 팁을 남겼어. 끝까지 나를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았지. 나는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어. 그의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지.”

그리고 독일인은 독일어로 무슨 말인가를 중얼거린다. 그의 동행이 소도시에서 비밀이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말한다. 그러자 독일인은 서울에 살아서 기쁘다고 말한다. 그의 동행이 묘한 표정을 짓는다.

가게에 오지 않는 사장의 아버지가 시간을 때우려고 신문을 펼친다. 독일인이 맥주를 한 잔 더 달라고 말한다. 맥주를 따르는데 마침 맥주통이 바닥난다. 사장의 아버지가 신문을 덮고 창고에서 새 맥주통을 가져온다. 못 쓰는 거품을 따라내고 맥주를 받는다. 독일인의 동행이 한국 맥주를 어떻게 건디고 있느냐고 말한다. 독일인은 한국 맥주도 나쁘지 않다고 말한다. 다만 감자가 맛이 없다고 한다. 내가 독일인에게 맥주를 건네주고 다시 자리에 앉자 사장의 아버지가 지하철에서 부츠를 신은 여자를 보았다고 말한다. 아직 날이 춥지도 않고 눈도 오지 않았는데 버프장머리 없이 부츠를 신고 다니는 여자들에 대한 성토가 이어진다. 나는 사지 못한 부츠를 생각하며 운동화 속에서 발가락을 오므린다.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지하 공기가 축축하다. 나무바닥의 갈라진 틈에서 버섯이 자라날 때가 있다. 나는 그 버섯을 뽑아 쓰레기통에 버린다. 착한 커피에서 커피를 마시고 더 착한 커피에서 커피를 마시면 일주일에 삼만이천 원이 사라진다. 일주일에 삼만이천 원씩 한 달을 모으면 그럭저럭 꽤 많은 부츠를 살 수도 있다. 일주일에 삼만이천 원씩 일 년을 모으면 독일행 비행기표를 살 수도 있다. 오래 머물지는 못할 것이다. 독일인과 그의 동행이 술값을 치르고 자리에서 일어선다.

어느 일본인 작가의 소설에서 여름 옷감을 한 필 선물받았으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는 대목을 읽은 적이 있다. 나는 막연히 다자이 오사무의 소설에서 본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 어쨌거나 나는 가끔 이 말을 생각한다.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은 때로 한낱 감각적인 것에 불과하다. 공항은 한산하다. 무장한 경찰들이 가끔 지나다닐 뿐이다. 그들은 작은 가방 하나와 커다란 말 인형 하나를 들고 있는 외국인 여행객에게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허름한 면세점을 기웃거린다. 나도 조금 전까지 그들과 마찬가지로 허름한 면세점을 돌아다녔다. 딸이 말을 사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다. 내일모레면 서른이 될 딸이 아버지에게 말을 사달라고 한다. 옷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가 없다. 어쨌거나 몽골은 말로 유명하다. 비행기를 타고 몽골로 와서 말 두 필을 사서 번갈아 타며 유럽까지 갔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나라면 그런 여행은 하지 않겠다. 일단 두 마리의 말을 무엇으로 먹일 것인가. 마굿간이 딸린 숙소는 어떻게 찾을 것인가. 유럽에 도착하면 말은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몽골의 말은 유럽의 말보다 작다. 기동성은 좋겠지만 장거리 여행에 적합한지는 알 수 없다. 아니다. 내가 말에 대해 뭘 알겠는가. 어쨌든 징기스칸 시대에도 말로 유럽을 정복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나는 말 대신 비행기를 탄다. 그리고 가이드가 따라붙는 여행만을 고집한다. 언젠가 베트남에 간 적이 있다. 가이드는 나를 포함한 관광객들을 라텍스 공장과 보석 상점, 코코넛비누 상점으로 끌고 다녔다. 라텍스 공장에서는 아들의 딸을 위한 유아용 베개를 샀고 보석 상점에서는 딸에게 줄 자수정 목걸이를 샀다. 코코넛비누 상점에서는 아무 것도 사지 않았다. 비누와 함께 뱀술을 팔고 있었다. 내가 아무 것도 사지 않자 가이드는 얼굴을 찡그렸다. 다른 사람들이 뱀술을 사자 가이드는 얼굴을 폈다. 내가 뱀술은 한국 공항에서 압수될 것이라고 참견하자 가이드는 다시 얼굴을 찡그렸다. 어쨌거나 다른 사람들은 뱀술을 샀다. 그들이 산 뱀술이 압수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비행기가 출발하려면 아직 40분쯤 남아있다. 딸이 말을 사달라고 했을 때는 분명 농담

이었다. 나는 검역절차가 복잡하므로 미안하지만 사다줄 수 없겠노라고 역시 농담으로 받아쳤다. 그런데 면세점에서 말 인형을 발견했다. 베개만 한 크기였다. 좀 더 작은 크기의 인형은 없느냐고 묻자 직원은 내 말을 애써 이해하지 못하는 척하며 큰 인형을 강권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커다란 말 인형을 샀다. 그리고 게이트 근처 벤치에 앉아 작은 가방에 커다란 인형을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나는 한 직장에서 35년 근무했다. 35년간 받은 급여와 퇴직금 대다수가 동생의 빚잔치에 들어갔다. 나는 동생을 용서했지만 아내는 시누이를 용서하지 않고 아들은 고모를 용서하지 않는다. 아무려나 나는 일부 건사할 수 있었던 돈으로 몽골이나 베트남, 중국을 짧게 여행한다. 그리고 몽골에서 서른이 다 된 딸을 위해 말 인형을 산다. 베트남에서는 자수정 목걸이를 사다주었다. 딸이 그 목걸이를 걸고있는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1년에 한두 번 보는 딸이니 마음 상할 일은 아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가이드가 내게로 다가온다. 사장님, 말 인형을 사셨네요. 손주 선물인가 보죠.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웃는다. 여행을 다닐 때마다 좋은 점은 늘 사장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다. 나와 일행들은 모두 사장님 혹은 사모님으로 불린다. 여행지에서 우리는 이렇게 평등하다. 생각해보니 이번에는 손자를 위한 선물을 사지 않았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짐 가방에서 비어져 나온 말 인형을 사진 찍고 딸에게 전송한다. 한국은 오후 세 시쯤 되었을 것이다. 게으른 딸도 일어났을 시간이다. 게이트에서 탑승하라는 안내방송이 나온다. 면세점을 기웃거리던 일행들이 이쪽으로 다가온다. 도통 가방에 들어가지 않는 말 인형을 도로 꺼내든다. 기내에서 베개로 삼을 생각이다. 사흘간 저녁마다 같이 맥주를 마셨던 일행들이 말 인형을 보고 한 마디씩 던진다. 손주 주실 건가 봐. 몽골 말이 아니라 중국 말이겠지. 게이트에서 직원이 항공권을 스캔한다. 그때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린다. 핸드폰을 꺼낸다. 여동생의 전화다.

날이 밝고 있다. 새들이 짓는다. 새들이 한 시간째 짓고 있으니 동트기 시작한지 한 시간쯤 지났을 것이다. 한 시간 전에 해가 뜨기 시작했다면 이미 날은 밝았을 것이다. 가끔 날이 밝았다고 해야 할지, 날이 밝고 있다고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가 있다. 창 밖은 환하다. 방 안은 어둡다. 잡동사니들이 흩어져 있다. 자질구레한 물건들이다. 자질구레한 잡동사니라는 단어를 누가 처음 말했는지 생각하고, 그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감사한 마음이 된다. 그러나 시체를 발명한 사람에게서는 어째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 더 많은 시체를 발명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 시체는 발명되지 않았다. 생겨났을 뿐이다. 여러 사람들에 의해. 그들 모두에게 책임을 묻다가는 인생이 끝날 것이다. 책임을 묻다가 인생이 끝난다면 그걸로도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다.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대상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다.

케이블 채널을 돌리다 낮선 풍경과 마주한다. 모래색 건물과 검은 그림자. 화면으로도 건조함이 느껴지는 하늘. 구름 한 점 없다. 깃발이 펄럭이고 그림자가 검게 흔들린다. 나이지리아 대통령궁이다. 나이지리아 대통령의 이름은 굿럭 조나단이라고 한다. 행운을 빌어, 조나단. 그러나 그에게 행운은 없다. 적어도 지금 그는 불행할 것이다. 아니다. 불행한 표정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아이에게 굿럭이라는 이름을 붙일 때 부모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행운을 빈다는 말은 아직 행운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모든 희망은 현재적이지 않다. 모든 희망은 미래에 있다. 그리고 미래는 결코 현재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행운은 없다. 나의 이름에 행이나 운은 없다. 내 이름은 평범하다. 늘 같은 이름을 지닌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평범한 이름에 불만은 없다. 가끔 내 이름

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나와 같은 이름을 지닌 사람들의 일상을 관찰한다. 그들은 적당히 행복하고 적당히 불행하다. 나와 같은 이름을 지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원한다면 하루 종일 그들의 평범한 일상을 관찰하며 보낼 수도 있다. 누군가는 최근 세이셸로 여행을 다녀왔다. 나는 세이셸이라는 이름을 처음 접했다. 사진 속 풍경은 아름다웠다. 아프리카 남단에 있는 섬나라라고 했다. 세이셸, 이라고 천천히 발음해본다. 가본 적도 없는 나라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이름이다. 굳이 세이셸까지 가지 않더라도 나와 동명이인인 사람들 대부분은 그러저럭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저럭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은 보통 불행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적어도 불특정 다수가 보는 블로그 따위에 불행을 떠벌리는 사람들은 행복을 떠벌리는 사람들에 비해 그 숫자가 현저히 적다. 나는 동명이인들의 블로그들 중 몇 군데를 정기적으로 찾는다. 그리고 글을 올리는 주거나 말투, 사진, 행간 등에서 그들의 불행을 읽어내고 내심 즐거워한다. 착각일지도 모른다. 그들은 불행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실은 나도 딱히 불행하지는 않다. 다만 행복하지 않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는 행복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게 되었다. 전에도 안 적은 없었다. 다만 짐작했거나, 착각했을 뿐이었다. 실은 불행이 무엇인지도 알지는 못한다. 다만 불행은 아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이고, 나는 내가 불행하다고 느낀다. 그 이유가 동명이인들이 많아서가 아니다. 하지만 동명이인들을 불행의 구실로 삼을 수는 있다. 같은 이름을 지닌 사람들이 나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나도 블로그를 개설했다. 쉬운 일이었다. 그러나 블로그에 한 줄도 쓰지 못했다. 사진 한 장 올리지도 못했다. 보는 것과 하는 것은 달랐다. 칠 지난 노래 몇 곡을 링크하고 나자 더는 흥미가 생기지 않았다. 당연히 방문자도 없었다. 아무도 나의 행복을 염탐하지 않았다. 아무도 나의 불행을 염탐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나도 나를 염탐하지 않았다. 나는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을 모사하는 일에도 실패하고 말았다.

라디오에서 공익광고가 나온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나는 헛소리라고 생각하며 채널을 바꾼다. 월요일 오전 8시의 교차로는 한산하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침이면 토사물을 쪼고 있는 새들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새들도 사라지고 없다. 취객들의 토사물만이 남아있다. 오후가 되면 토사물은 치워진다. 그리고 밤이 되면 다시 토사물로 뒤덮인다. 다른 동네로 옮길 생각도 했다. 그러나 다른 동네로 이사한다고 해서 삶의 질이 더 나아질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삶의 질이라는 것이 애초부터 존재했는지도 의문이다. 바꾼 라디오 채널에서 남해에 새로 생겼다는 리조트 광고가 나온다. 바다가 바라보이는 객실에서 하룻밤의 낭만을 즐겨보라는 광고다. 텔레비전 광고가 나름대로 비약적인 발전을 해온 반면 라디오 광고는 20년 전과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아니, 들린다. 라디오 광고를 듣고 마음이 동한 적이 없다. 생각해보면 텔레비전 광고를 보고 마음이 동한 적도 많지 않은 것 같다. 교차로를 지나 길가에 차를 세우고 비상등을 켜다. 편의점에 들어가 캔커피를 사들고 나오는데 핸드폰이 진동한다. 확인해보니 누군가가 커피 교환권을 보내왔다. 스승의 날 선물이라고 한다. 나는 누굴 가르쳐본 적이 없다. 잘못 보내진 문자인 모양이다. 오늘이 스승의 날이라는 것도 이제야 안다. 나는 캔커피를 마시며 문자를 잘못 보내셨노라고 알려주려다가 그만둔다.

사무실에도 라디오가 나오고 있다. 점심시간이 다가올 무렵 라디오에서 사연 하나가 소개된다. 잃어버린 개를 찾았다는 내용이다. 잃어버린 개가 옆집에 있었다고 했다. 개 주인이 옆집 여자에게 왜 개를 훔쳤느냐고 따지자 개 도둑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이 개들은 여기서 행복하다구요. 나는 개와 대화할 수 있어요. 개들은 여기서 전에 살던 곳보다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어쩐지 이상하게 들리는 말이다. 진행자가 사연을 읽다 말고 반문한다.

“그렇다면 개가 한 마리가 아니라는 건가요?”

나는 개를 훔친 여자가 정말로 그런 말투를 사용했을지가 더 궁금하다. 일반적으로는 잘 쓰지 않는 말투이기 때문이다. 진행자가 질문을 하나 더 던진다.

“개들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은 대체 뭘까요?”

게스트로 나온 남자가 웃음을 참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웃을 잘 만나야 돼요. 미친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진행자도 웃음을 터뜨린다.

“아무튼 개를 찾으셨다니 다행입니다. 옆집 여자분, 남의 집 개를 훔쳐가시면 안 되죠. 이것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내 옆자리에서 근무하는 강이 키보드를 두드리다 말고 나를 돌아본다. 유괴나 마찬가지로 겁이, 라는 표정이다. 내가 뭐라 말을 꺼내려는 찰나,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온다. 모르는 번호다.

전화를 받자 모르는 목소리가 대뜸 화부터 낸다. 문자가 잘못 갔으면 잘못 보냈다고 알려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대꾸하지 않는다. 그거 쓰지 마세요. 알았어요? 알았냐고요. 나는 한참 시간을 끈 후에 대답한다. 네. 그리고 전화를 먼저 끊어버린다. 잠시 기다렸지만 핸드폰은 다시 진동하지 않는다. 나는 강에게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말한다. 마침 점심시간이 다 되었다. 옆 건물 1층에 스타벅스가 있다.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나는 스타벅스 직원에게 문자를 보여주고 잠시 기다린다. 직장인들이 거리를 메우기 시작한다. 커피를 받아들고 나오는데 실종 노인을 찾는다는 전단이 눈에 들어온다. 여, 79세. 약간의 치매 증상. 나는 이름을 확인하고 짧게 놀란다. 나와 이름이 같다. 플라스틱 컵에서 차가운 물방울이 흘러내린다. 물방울은 손목에서 잠시 머물다가 이내 보도로 떨어진 다. 나는 사무실이 있는 건물로 돌아간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강을 비롯한 동료들을 마주친다. 점심, 안 먹어?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누군가의 시상식장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다. 나는 좀 늦게 도착했으므로 뒤쪽으로 가서 선다. 옆에서 누군가 알은 체를 한다. 나는 고개를 약간 숙이며 인사한다. 꽃다발을 든 사람들이 보인다. 심사경위가 발표되고 축사가 이어진다. 시인이 축사를 읊는다. 시인은 상을 받은 소설가에게 이제 사후의 명성을 생각하라고 말한다. 이 말이 묘하게 들린다. 축사가 끝나고 수상자가 겸연쩍은 얼굴로 앞에 나와 감사의 말을 전한다. 박수가 이어진다. 나도 박수를 친다. 그러면서 사후의 명성에 대한 생각에 잠긴다.

그러나 생각은 길게 이어지지 않는다. 술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잔이 배분되고 술이 따라진다. 잔이 부딪히고 술이 넘친다. 화제는 최근 있었던 필화 사건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누군가의 결혼 소식을 옮겨다닌다. 낮익은 얼굴들과 낯선 얼굴들이 번갈아 나타난다. 그러다 누군가가 옆에 와 앉기에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고 처음 뵈겠다고 말한다. 그러자 그가 버럭 화를 낸다. 그에 의하면 우리는 몇 년 전에 이미 인사를 나눈 적이 있다. 나는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얼굴과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자랑은 아니지만 사실이 그러하다. 나는 죄송하다고 말한다. 그는 내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 분위기가 잠시 얼어붙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나는 그를 따라 일어나다가 다시 엉거주춤 자리에 앉는다. 아무리 생각

해도 그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은 그의 이름만이 아니다. 이런 변명이 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사람이 그의 이름을 던지시 알려준다.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서 분노의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간다. 그는 누군가와 대화하는 중이다. 그가 대화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다. 아니, 그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의 주의를 끄는데 실패한 나는 술집 안을 둘러본다. 술집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겨난다. 아니다. 물론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나 그들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다. 하나도. 나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아까는 죄송했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아서요. 실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손을 내저을 뿐 나를 돌아보지도 않는다. 나는 화가 치밀지만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한다. 그제야 그는 나를 돌아보며 가라고 말한다. 그래서 나는 간다.

조금 전에 앉아있던 테이블로 돌아가기가 머쓱해진 나는 화장실로 향한다. 내가 들어가려는 찰나 안에서 누군가가 나온다. 그가 내게 고갯짓으로 인사한다. 나도 그에게 고갯짓으로 인사한다. 그러나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 미칠 노릇이다. 나는 뒤를 돌아본다. 사람들의 뒤통수와 옆통수가 보인다. 백 명은 족히 될 것이다. 오늘의 수상자가 멀리 앉아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었던지도 이제는 기억나지 않는다. 물론 거짓말이다. 그러나 오늘의 실수를 만회하려면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야 할 것 같다. 심지어는 내 이름조차 잊어야 할 것 같다. 나는 화장실에 들어가 수도물을 틀고 손을 가져다댄다. 물은 차갑다. 손을 말리고 돌아서려는데 누군가가 화장실에 들어온다. 역시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사람이다. 김씨 아니면 이씨일 것이다. 아니면 박씨거나. 나는 그의 시선을 슬그머니 피하며 화장실을 나온다. 음악소리와 말소리가 뒤섞여 귓가를 울려댄다. 나는 다시 한 번 내게 화를 냈던 사람에게로 다가간다. 그는 여전히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내가 딱하게 보였던지 그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서며 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나는 미안하다는 말을 대신 전해달라고 말한다. 그는 알았다고 대답한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다. 그에게 즐거운 시간 보내시라는 말을 하며 돌아선다. 그 순간 가방을 놓고 나왔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다시 술집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무수한 얼굴들과 다시 마주친다.